

“독재에 맞선 광주 민주화운동은 미얀마의 롤모델”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관계자들 광주 방문...인권포럼 참석 “우리도 이겨내야 한다” 청년 동참 늘어...국제사회 연대 절실

“미얀마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독재자는 결국 사람만 다르지 모두 똑같은 마음입니다.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부정 선거를 하고, 유혈 진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광주는 그에 맞서 싸워 결국 승리했습니다. 미얀마 또한 광주의 뒤를 따라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올해로 3년째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에 맞서 민족통합정부(NUG)를 세우고 저항 활동(봄의 혁명)을 하고 있는 NUG 정부 인사들이 16일 광주를 찾았다. NUG 진 마 아웅(Zin Mar Aung) 외교부장관, 틴 툰 나이(Tin Tun Naing) 기획재정부장관, 린 텃 아웅(Lin Htet Aung) 시민불복종 운동(CDM) 대위다.

이들은 5·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2024 광주인권포럼’에 참석해 ‘미얀마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하기 위해 망명 중이던 체코 등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를 찾아왔다.

포럼 참석에 앞서 광주일보를 만난 이들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NUG 활동의 미래”라고 설명했다.

진 마 아웅 장관에 따르면 미얀마 내에서도 5·18은 잘 알려져 있다. 아웅 산 수치를 비롯해 미얀마 군부에 저항한 인사 세 명이 광주인권상을 받은 점, 환류 열풍을 타고 5·18을 그린 영화 ‘택시운전사’가 널리 퍼진 점 등에서다. 특히 ‘택시운전사’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혁명’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진 마 아웅 장관은 “광주 5·18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역사다. NUG와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우리도 광주처럼 결국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을 심어준다”며 “특히 5·18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NUG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틴 툰 나이 장관도 “광주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다. 군부를 무너뜨리려면 결국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며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1998년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살려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NUG가 저항 활동을 시작한 이후 3년 동안 군부의 힘이 차츰 약해지고, NUG는 국민의 지지뿐 아니라 소수민족까지 끌어모아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 NUG가 통치하는 지역이 많아졌으며, 혁명을 지지해 주는 국민도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틴 툰 나이 장관은 “NUG와 국민이 합심해서 싸우고 있으며, 성과도 내고 있다”며 “예컨대 군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군부가 운영하는 ‘미얀마 비어’ 맥주 불매운동을 하는 등 캠페인을 벌여 막강하던 군부의 경제력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속적이다. 혁명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1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만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인사들. 왼쪽부터 진 마 아웅 외교부장관, 틴 툰 나이 기획재정부 장관, 린 텃 아웅 시민불복종 운동(CDM) 대위.

다는 것이다. NUG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가 NUG를 일개 단체가 아닌 정식 국가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국제 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틴 툰 나이 장관은 “국제 사회의 NUG에 대한 지지와 후원뿐 아니라, 군부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며 “군부 비행기에 연료를 공급

하는 한국 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NUG 정부 인사들은 “우리가 하는 혁명은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이다”며 “광주가 군부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듯이, 미얀마의 ‘봄의 혁명’도 결국 성공했다는 역사를 남기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NUG는 지난 2021년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총리가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대해 설립한 임시정부다. 군부의 민간인 학살 및 파괴 행위에 맞서 군부의 잔혹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의 인권 의식을 일깨우는 활동뿐 아니라 시민방위군을 통한 무장 투쟁도 하고 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전국서 44주년 5·18 기념 행사

44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의 기념행사가 광주 도심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18일 당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2500여명이 모이는 정부기념식이 거행된다.

16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에 따르면 1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1,2,3가 차없는 거리에서는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해방광주(시민난장)’ 행사가 열린다.

시민참여형 39개 부스와 버스킹 무대 등이 마련되며 오전 11시부터 오월 어머니집의 ‘오월 주먹밥 나눔’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

1980년 당시 전남대 정문을 넘어 가두시위를 하며 금남로로 행진했던 ‘민족민주화성회’를 44주년에 맞게 재현하는 행사도 열린다. 518명의 풍물단과 광주시민이 함께 걷는 ‘민주평화대행진’을 통해 오후 5시께 광주공원-금남로, 북동성당-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행진이 끝난 이후에는 광주선언을 통해 금남로에서 전국으로, 전세계로 다양한 오월의 가치를 실천

오늘 전야제·내일 정부기념식

금남로에선 시민난장·버스킹

주먹밥 나눔·민주평화대행진

전북대·부산·대전 등서 기념식

천주교 미사·원불교 위령제도

하는 메시지도 들을 수 있다.

이후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와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기념행사의 꽃인 ‘전야제’가 열린다.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주제로 3개의 주 무대에서 열리는 공연을 볼 수 있다.

18일 오전 10시에는 국립6·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정부기념식이 열린다.

올해 정부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월 어머니들에게 아낌없이 꽃을 전달하는 행사와 학생들의 합창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기념식 후 오후 5시에는 5·18민주광장에서 ‘민주의 종 타종식’이 진행된다.

종교행사도 마련됐다. 천주교 남동성당(광주 동구)에서는 오후 7시께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의 44주년 기념미사가 이뤄진다. 원불교광주전남교구는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립5·18민주묘지 역사박물관에서 희생영령을 위한 원불교 위령제를 진행한다.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5·18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17일 전북대에서는 ‘5·18 전국 최초의 희생자 인정 이세종열사 기념’ 행사가 진행된다. 18일 대구에서는 대구 시민들이 5·18국립묘역 및 망월묘역, 금남로 등 5·18사적지를 찾는다. 부산과 대전, 창원에서도 17일과 18일 지역 내 광장에서 문화제와 기념식을 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신봉수 광주고검장·이종혁 광주지검장 취임

신봉수(64·사법연수원 29기) 제 52대 광주고등검찰청장과 이종혁(57·30기) 제 68대 광주지검찰청장이 16일 취임했다.

완주 출신인 신 고검장은 이날 오후 광주검찰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해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보장하고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중대 사법 방해범죄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도 같은 날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수년간 수사권 조정, 증거법 개정 등 수사와 재판 환경의 변화가 이어지는 등 매순간 도전에 직면했다”며 “변화의 시기에 흔들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책무에 충실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고검장은 건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 북부지검, 대전·광주·서울중앙·의정부 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신봉수 광주고검장 (왼쪽) 이종혁 광주지검장 (오른쪽)

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대구·광주지검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대검 형사2과장·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서울고검 차장 등을 거쳤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Advertisement for Green Goong Prime Ever 120. Features the product box and text: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and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